

기로(岐路)에 선

美 육군의 21세기眺望

• Wolf-Dietrich Kutter

- 편집실 옮김

美軍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개념, 조직, 제도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군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략적인 변화의 시기를 눈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폴 케네디는 그의 저서「위대한 힘의 흥성과 쇠퇴」에서 강력한 힘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의 축적과, 자본의 형성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영국은 군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대영제

국의 확장에 기여한 무역동맹을 경시, 외면함으로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NATO의 40년에 걸친 집단안전보장을 위한 투자는 GNP의 3~4%에 불과했는데, 연합의 지도국으로서 미국은 냉전극복을 위한 노력으로 GNP의 6%를 투자해 왔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미국 정치체제로 지금의 탈냉전체제속에서 어떻게 지역적, 경제적 평화를 지켜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올해초 LA폭동과 이라크와의 전쟁을 통해, 그리고 경제에서 직면한 많은 어려움은 국가안보의 수단을 강제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집단 안전보장체제」에서「지역 안전보장 체제」로 재편된 것입니다.

앞으로 3년간의 국가안보수단에 관한 토론을 통해 국가국방전략에서의 군배치와 예정된 계획들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합전투의 역할과「사막의 방패, 폭풍작전」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美軍은 실질적인 국방예산지원의 감소속에서도 금세기와 다음세기에 효과적인 전투력 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기로에서 선택할수 있는 전투개선방안은 정제되고 집약된 육·공군의 연합작전, 군 조직의 재편성, 전략과 전술의 연계 등입니다.

종합적인 군의 분석에는 필수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의 인식과 불확실한 시대, 전쟁수행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이들은 우리가 역사의 커다란 파도 끝에 서있다고 하는데 제1, 2차 세계대전과 우리 뒤에 놓여있는 냉전시대 그리고 주요 쟁점으로 표시되는 역사의 파도들을 미래에 어떻게 정형화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2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우리는 정밀무기의 눈부신 진보를 보았고, 3차원적 전투공간에서 전자마그네틱 스펙트럼등의 첨단기술을 통한 4차원적 전장으로 확대되었으며, 고도의 정

보체계가 무기체계의 주요구성인자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국방과학기술과 완벽한 훈련의 조화, 효과적이고 조직적인 연합전투의 전략으로 전쟁의 개념을 한차원 높게 발전시킨 높은 수준의 작전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막의 폭풍작전」같은 4차원의 작전은 1939~1941년의 전격기습작전과 함께 세계의 전쟁사에 영원히 기록될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미국식 연합전투」의 형태로 굳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군 조직과 지도력의 조화, 전략과 전술이 연합적 전투수행 능력과 함께 발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1939년 폴란드 전투에서 독일의 Staff장군은, 성공적인 작전수행의 모든면에서도 비판적인 자기분석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대개의 승전군은 승리에 도취되어 적에게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던 원인분석을 게을리합니다.

우리는 특히 탈냉전의 시대에서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정군의 중심적 작전 시나리오는, 유럽식의 전장에서 강화된 기지중심의 전력배치로부터 발전해 실전투지역 중심의 전력배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냉전기간에 최초 방어적 전략과 작전개념범위에서, 지금은 공격적 전략과 작전개념으로 기동의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사막의 방패, 폭풍작전」에서의 교훈은, 냉전시대의 군 조직이 방어적인 전투작전수행에서 탈피해 공격적인 작전수행의 차원으로 변화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개념은 미국과 다국적군이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성공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재확인되고 입증되었습니다.

21세기의 공격적인 군사력의 전술 전략은 전통적인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리고, 군의 구조는 새롭게 함으로써 세워질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 조직의 재편을 통해 작전과 환경을 접맥하고, 지상전투에서 4차원적 전투 개념을 도입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육·해·공군의 연합작전에서 어떻게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를 기민하게 수행하는가와, 군 지휘부의 전술과 작전면에서 위상정립도 중요합니다.

한편 전쟁의 복잡성이 증대되는 시대에서 군의 전투능력은 광활한 지역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전파하는 정보체계에 달려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동력있는 전투수행과, 4차원적인 입체작전, 95%이상의 높은 살상률을 지닌 첨단무기체계를 개발, 보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력은 앞으로 다가올 1000년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조직되고 개편되어야 합니다.

군사력의 구조적 수행체계는 국방예산삭감의 현실속에서 연합관계를 통해 효과 집중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미래의 전쟁에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직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21세기를 바라봄에 있어서 동시성의 시대는 커다란 기회와 함께 위험도 가져다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있는 전쟁은 전에는 볼수 없었던 전장 기능의 복잡성, 지상, 공중, 해상에서 우주공간까지 통합된 4차원의 전쟁, 과학기술의 발달로 개발된 신 무기체계 등으로 눈부시게 변모하였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역사적 패러다임을 검토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경우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 가야 하는가는 기존의 전통적 전쟁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군의 연합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엽적 문제에서 탈피한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야 가능합니다. *